

小愛情
說

美人斗淚



111

Inches 1 2 3 4 5 6 7 8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의정 소설 미 인 의 루 (美인의淚)

데일회 제중원병실

떡은오죽륙월성념이요밤은임의적막흔반야삼경이라만뢰가구적하야사방이요사
적々흔디줄々흐르난구진비소리와잔々이들니는남디문녀에적소리만처량이들
니난정 밤중이라서을남디문밖제중원입원치료부철호실녀자일등병실안에는엇
더흔쳐춘녀자하느히외로운병상에홀로누어좌우병실노셔여러환자의신음하느소
리가어지러운비바람에섞기여드러오난소리를듯고점약흔잔장이거이녹아지는듯
히음업는눈물이흘너버키를적시며심히고민하난모양이더니문득머리우에노여잇
는적은가방을열고엇더한편지흔장을들고전기불에빗취여여러번지독하코잇다그
편지난엇더흔편지인지잠시동안이라도마음에위로를엇은것갓치보인다그편지의
사연을보건디아리와갓흔말이그록하야잇섯다

아! 옥자여저리흔장마의비논여전히오난디좌우병실로셔여러환자의슬피신음
흐난소리에얼마나신경을자극하느는가

죽약이비룩입에는괴로우나병에는리롭다는말삼은성현의말삼이라부디약을정
성으로먹고의사의못난말을잘디답하며심신을괴롭게말지어다

그디의몸이강건흔후에야고향에사탕하느부모도맛날슈잇고그갓게만반사업도

録号	3170
分類号	
分番	
圖書号	
圖番	

성취할슈잇나나모름직이자중자보함을바라노라

그티의몸이비록혈々고단호지만은진심으로그티를보호호호며신성호사랑으로귀
의호는사람이여괴잇스니일호라도비감치말고부티안심할지어다

티일앗침여달서에난응당가셔보려니와티몸을티신호야그티의고동호마음을위
로할만한벗이호나를보노니인정소설실패의루라이쇼설은년전에니가여구호
소설인티악이을증개호고선이를권장호앗스며의리를쇼와호고신의를존중호난
아름다운취미가나타슈심과격정이침노호거던이소설을보와물너치라

그러나호나트슈의할것은병중에잠을잘못자면신경쇠약호는니척보기에잠심호야
안면을방히치말나

년월일및티성명은업다

이러호편지를여러번지독호다니척々접어병상우에눅코호호자호난말이라

아이이량반의은혜를엇지호야갑는단말이나나의척척도안이요더구나아모관계
가업노티인티외와갓치고호호야쥬실뿐만이라지산을만히히비호야죽을목숨을
구원호야쥬너티산갓호은혜를엇지호나처음부터이곳에입원을호호더면하마거
이나오런만공연이그곳에서여러달을허송할뿐만이라그량반의신세만더지엿지
아발서니가병원생활이구십일이안닌가하로밤비퇴원을하야그량반의신세
를적게질러인티

나의부모형제안들이에엇지더할가허구호날을호호갈갓치호호야쥬시니하로잇
홀이안이요곰아운마음보다미안호기가짜이업고나오나니가사라가면그량반의
은혜는결초보은이라도호호야올치

이러호말을호호자짓거리다가병상에노여잇는소설을손에들고소리업시니려보는티
창밖게부티치난구진비소리만요란히들니고이편저편에서여러환자의신음고동호
는소리만잔々이들닌다

데이회 사향의루

이이녀자호엇더호녀자인가그녀자의본리고향은경상남도통영이요그떡의현쥬소
는경성다육당이엿다고향에난사랑호는부모가잇고한낫옴바가잇셔금지옥열갓치
귀엽게자라난녀자이다그녀자호괄자소관이던지심삼세에그생이되얏다가심오세
떡에엇더호호부호가의이척이되얏섯다티록그생의출신이앗스나구고를섬김과남편
을공디호이며가산을다사티난법이양가숙녀라도밋지못호며슈탈호동작과유한정
々호호동은누가보던지그생의출신이라호기어려우며더구나자기의평생영육이다
만그남편의게달녀잇슴을감히밋고자그몸에연약호사랑은모다그남편의게밋기여
바렸섯다

아이세상에밋기어려운것은경박청년의일이다그남편과동거호지오년동안이요그
녀자이심세되던히에그남편의경박무정으로인호야리호호안이치못호게되얏섯다

그리셔 그히 철월애 사랑호는 부모와 정는 고향을 리별호고 가삼애 무호한한을 품고서
올노을나왔는디 산설고물선곳이요 더구나 녀자의 몸이라 천리라 향철々 무의호몸이
지향할곳이 어디메나 생각다 못호야 세상인심이나 구경호라 고다시괴생이 되고저작
정호얏다

그리셔다시 몸을 화류계애 더지엿는디 더덕월반애 일흠을 길고 일흠을 지여 부르기는
호나 당초애 어려셔부터 부르던 일흠은 옥심이라 그리셔 민적애도 옥심이로되고괴생
의 영업장에 도일명은 옥심이라고 조공아 깨씨잇다

그러나 옥심이라면 경성안애 서난아라 불사람이 업섯다 옥심은 본디 풍류가 일슈요가
야금이장씨이며가사시조남중소리와거문고의슈단이며어디를가던지괴생의기술
로난막힐것이업다그런고로호시도집에잇슬사가업시슈야로도쳐애환영을받게
되엿스나 옥심은 특별히이상호특성호가지가잇는디이것은남자의환정을받지안는
특성이라바로말호즈면남즈를미워호는특성이엿다

옥심도 본리부터이러호특성을가진것이안이라 처음남편의게 단々호의정의실리를
당호고남자난모다무정박정호거니호야남자라면밋지못할것으로리슈에김히삭엿
슬썩안이라자괴몸에잇던의정은모다그남편의게 빼앗겨바리고비안등산만남아잇
는것이다비유호야말호자면연약호호초목애독호서리를마자일사귀와가지는다말
나저업서지교비안등길만남아잇는세음이라

루 의 인 미

그리호야셔다른남자의게이정을주려할지라도자괴몸애는남아잇는의정이업고더
구나경박호청년은가증호게보난터이라그런고로옥심은이세상에희망은싫어져바
리고비관애작긴몸이다다른괴생으로말호면포쥬의게잇즈며고초를당호면서도남
편을맛나세상의취미잇는성활을호번호여보리라고일점희망이잇기때문에고생을
참고호흔떡가오기를희망호야사라가것만은옥심으로말호면다시남편이라는희망
이싫어진고로무엇을희망호고오날서지사라잇리요만은고향애늘근부모를생각호
야지미업는세월을보노오던터이라

무정호것은세월이라옥심이가셔올애온지발셔아흥달이요그익년삼월상순이라삼
각산상々봉애는아죽도벽설의흔적이남아잇고정전환미화가지애는오히려찬괴운
을먹음엇스나유정호등풍은발셔춘광을저축호야사산방초난곤々호물결빛치나타
나고만가양류난적々호번음세계를저축호난디불근뜻파푸른입은산용을단장호고
나는나비와우난시는반공애공총호다쇼인목격이며지자가인들은삼々오々애작반
호야혹은등산림슈호며혹은방화슈류호야일년일도의호시절을절기호디슬푸다옥
심은이러호가절이엿만은홀로집에잇셔천리밖게잇는부모를생각호며호々막々호
전정을비관호야히음업시눈물을흘니다가문득거문고를너여무릅우애연쇄사향의
눈물을흘니다니첨아뵈터셔남々이지저고리는서제비쇼리를듯고문득거문고를밀
치며제비를보고호난말이라

반갑다 더 제비야
 강남만 리면 사 길을
 반갑기 뜻이 업고
 넷 집을 차자 오니
 너난 바룩 미물이나
 슬푸다 나의 몸은
 고향을 차자가셔
 이윽고 한양공원로 송나 무우에서 불여 귀우난 소리가 청량한 바람에 쓰이여 유심하옥
 심의 귀에 들녔다

슬푸다 두견이여
 네아모리 피를 너여
 축국 만 리 먼 사 길을
 네우름 드러보니
 고향의 부모 생각
 사산 방 초허다 흐티
 성성 제혈 염화지로
 네아모리 설이 운들

유신하 다 더 제비야
 무사히 도라 오니
 장안만 호허다 흐티
 유신하 기 혼이 업다
 집을 차자 왓것마논
 어느씨 죠흔 시절
 부모를 본단 말 가

우지마라 두견이여
 불여 귀라 슬피운들
 네어이 간단 말 가
 너쇼 회 일 반이라
 불여 귀 혼이 어늘
 곳티 여 너 창 밧게
 나의 슈 회 도 사 논 나
 축국 고향 어이 가 며

네아우 리 혼란 혼들
 고향 천 리 어이 가 라
 네우름 너 혼란 이
 다만 이 만 실을 지 라

이와 갓치 자문자답하 며 두눈의 구슬 갓 혼 눈물이 점점이 떨어 지는 디 허난 말서 서산에
 잠기고 슈정갓치 맑고 찬달이 벽공에 올라와 교々 혼 광선이 옥심의 얼골에 빛취여 있다

데삼회 세심관 일호설

밤은 임의 삼경이라 월석은 죠요 하야 런던디에 빛을 펴고 춘풍은 호탕하야 산야에 편만 혼
 디 광화문 동우편 국압을 막도라 서너어 디로서 담々 흐거문고 곡조가 들닌다

그곳은 곳- 세심관요 리점 일방이요 그안에 논 었더 혼상점 십유년 괴 려면 회이 다 십여
 인의 유지 신사가 모와 잇고 여러기 생도 참 석하얏는 디 옥심도 또 혼그가 운 디 석기 여 잇
 다 그중에 북편 벽을 등지고 안진 신사하 나 는 년과 가 불로 불쇼 하야 삼십 가량이 며의 복
 은 불검 불치하 게 춘추 양복을 입 었다 열는 보기에 도산 전 슈 전 여러 가지 풍상을 고루 맛
 본듯 혼 풍기가 외면에 나타 나고 다 정다 혼한 기 절이 나타 나 보인 다 그 신사로 말하 면 일
 주이 국은 을 만히 입 었스나 시세의 변천 함을 써 닷고 실업에 종사 혼 지 오 리라 강 유를 겸
 전 혼 성질이 며 승상 접하 혼는 교제 난사 람마 다 총 찬하 며 더 구나 자 선을 승 비하 고 공의
 을 죠와 하 는 중의 리를 죠와 하 난의 협가 이 라

그러나 그 이난 이상 혼 특 성 혼가 지가 잇섯는 디 그 것은 못녀 자를 미워 하 는 성질이 요 더
 구나 괴성이 라 면 맹 서하 난 성벽이 었다 그 이 로 말하 야도 본 디 부러 그 러 혼 성질이 잇는

것은안이였스나 심년전에 었더 혼의 성을 이첩으로 동거 혼일이 었섯는 뒤 할 슈업논의
 성의 습관이 라 이첩의 경박으로 인하여 이성의 실피를 단々이 당하고 녀자는 모다 무정
 혼것이 다 더구나 괴성은 모다 밋지 못 할 악마이다 이러 혼 감상이 뒤 슈에 굿어 녀자 라면
 가 중하게 보 난 성벽이 었섯다

남편벽을 등지고 안진 옥심우 남자를 미워 하는 감상이 잇고 북편벽을 등지고 안진 그이
 의 마음은 녀자를 미워 하는 성질인 고로 옥심과 그이는 백년을 혼곳에 었더 리도 서로 령
 쇼하야 그 마음은 어름갓치 차고 말 것이 다

아 | 이상하 다 녀자 라면 령 쇼하던 그이는 혼연이 옥심의 얼골에 슈심이 첩々함을 보았
 다

옥심으로 말하면 그리 아 그자 그하게 여 업 볼 것은 업지만은 덕성스려 운용 광은 부덕이
 잇서 보이고 아 름다 운양 자는 이교가 넘쳐 보이며 두눈의 말근 정신은 절쇼가 잇서 보인
 다 그 음성을 들건 뒤 런 성녀 짝이 요그 행동을 보 건 뒤 본성이 단아 하야 보이 난 뒤 무삼
 닥인 지 그 미목사이에 는 싸여 잇는 근심이 천첩만첩이라 한번 우습과 혼 번 짝 짐이 업서
 다만 근심에 잠겨 잇음을 그이 난이 상이 보고 의척 혼 감동이 이러나

아 | 었지 하야 저러 혼 녀자가 화류계에 몸을 더 졌는가

이러 혼 감상이 이러나며 옥심을 갖가 이 안치고 주쇼성명을 못 고 활기가 업서 비창 혼 터
 도 가 잇는 연고를 무려 보았스나 옥심은 자괴 소회를 말하 지 안이 한다

그이로 말하면 자괴가 평소에 락이 업서 인심을 원망하고 비관에 잠겨 잇슬 때 가 만 혼 고
 로 옥심의 비창 혼 터도에 동정의 마음이 움작이 여 옥심을 유심히 주 목하야 아 모 리 살 피
 보았스나 마음속에 단々하 고 큰 아 큰 감상이 숨어 잇서 간々이 자괴 몸을 자괴 괴로히
 역임을 아라 보게 되 았다 그리 서 옥심을 비록 처음 보 난 터이나 이 세상은 희망과 락이 잇
 서야 사 라 간다는 말 노 옥심의 마음속에 근심을 천절 하위로 하는 말을 하 었섯다

그후로 그이와 옥심은 종종 서로 맞나 게 되 았는 터 그 것은 다른 연고 안이라 그이로 말하
 면 실업가이 요 또 혼 교제가 이라 모 회사 귀 업서 이다 모 상점 괴 령 연 회 다 환영 회 송 별 연
 천 목회 잔 천 회 등 여러 연 회에 그이 난 번々이 천 터를 밧아 참석 하게 되 며 연 회에 참석 할
 때 마 다 번々이 옥심을 맞나 보았스나 처음 세심 관 일 방에서 밧 날 때와 갓치 옥심의 터도
 난 여 전히 슬 픈 괴 식이 요 그이의 태도 도 자 못 흥 처가 업음을 서로 짐작 하 었스나 혼 번 도
 자괴 들 녀사를 이 약이 혼 일은 업섯지만은 사람의 마음은 서로 갈 것 치 밧 취이 는 바가
 잇는 지 그이 난 옥심을 심히 불상 혼 동정 심이 잇섯고 옥심도 그이를 심히 공경 할 경 터의
 감상이 움작이 여 날이 갈수록 그이와 옥심의 교제 난 심히 천절이 지 닌 었다 그러나 그이
 와 옥심은 본티 모다 이성의 실피를 단々이 당하고 마음속에 단々히 굿어 잇는 감상이 잇
 는 고로 시속 남 녀와 특별히 달나 서그 량인의 교제는 다 만 신성 할 뿐이 요 다 른 춘정 과 갓
 혼 것 각은 염두에 도 닌 지 안이 하 었스나 남들이 그이와 옥심이 천절함을 보고 룡담으로
 터의 갓튼이 소위나 지미나 하는 평판도 드른 터가 잇섯다 그이와 옥심은 그러 혼 룡담을

드르면서 도곳대여 그러치안임을 발명할것까지도 업시셔로 보며 마하우슬썬이였다
그러나 룡담은 룡담이지 만은 그들을 지목하야니 외간이라고 룡담할썬마다 그들의가
삼속에는 이상스러운 감상이 이러하며 참으로 너의가 되고 보며 엿더 할가 이러호성각
도 업지 안이 호였스나 그것은 잠간 동안이 요절일에 단々 호실피를 생각호고 움작이려
호던 마음은 그만사라지고 마렸다

그러나 싸뜻호봄바람이 씻가 자에 지는 감과 갖치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 말나지고 업서
졌다 너의 정 의 썬리에서 는 부드러운 시씩이나 오려고 간혹 그들의 정근이 혼들며 회
조월석과 추우추풍에 완연이 정량을사모 할과 갖치 무엇을 생각할썬가 만호았다

데사회 악절의고통

이것은 익년 춘삼월이다 황량호던 산야에 단청의 빛을 물드리고던 하만물이 자락의 뜻
을 잊어 씻은 춘성에 무르녹고 빛은 도처에 방창하야던디 만물이 모다 룡평의괴상을 지
엿더라 서올다 옥정엿던 혼와가 집 뒷방아리 목에는 문을 쳇치이 닷고 신음호난 소리가
처량이 들니였다

이것은 옥심의 주인집이 요신음호는 사람은 옥심이였다 항상 비관에 잠겨잇던 옥심은
설상가상으로란 처의 병이 드러기거의 자유치이려 바리고 홀로 병석에 몸을 더저 밀
니잇는 부모를 부르지자며 자기고적 혼신세를 생각하야 버키우에 눈들 말을 날이 업시
몸은 거이 슈척하야 지고 정신은 죽종념라의 꿈을 꾸던터이나 평소에 별로 호천이호던

천구가 업고 더구나 천리타향외로 운몸이라 다 만 주인의가 덩 치료의약첩이나 응용호
았스나 엿지 효력이잇섯스리요

티저 병이라호는 것은 을 썬는 자연이 왔지만은 갈썬에는 자연이 가지 안이 호며 상당호
의약으로 구축함이 안이면 스사로 낮기어려운 법이다 그러고 병이라호는 것은 하로가
잇스면 호로 의손히를 더호고 한달잇스면 한달의 손히만 더할 썬안이라 말경에는 저사
파성명사지배아셔가는 가장 무서운 우리의 큰도적이 요원슈이다 그런고로 병을 두고
의약으로 알는 치료치안이 호면이것은 원슈를 사랑함이요 도적을 양성함이라

옥심으로 말호면 연약호몸에 크고 좁호병을 질머지고 자기가 룡히 치료할힘도 업고 누
구던지 동정하야 구완할 사람인 들잇섯스라 다 만 홀로 누어고 룡에 고 룡을 더할 썬이였
더라

이날은 더욱 마음이 비관호던 뜻해 쇠약호정신에 고향의 꿈을 꾸고 눈물을 흘니더니 문
득문밖에 서호인 부르난 소리가 들니였다 옥심은 혼몽호중에도 누구의 음성인지 아라
드러던지 호인 호로 하야곰 인도하야 드러왔다그이는 별사람이 안이라 옥심으로 하야
곰신성호교제가 친밀하다는그이였다그이난 어느곳에서 옥심이가 중병에 걸니였다
는 말을듯고그병을 위문코자 비로소 옥심의 집에 발을 드디게 되앗섯다

그이난 옥심의 고통호난 모양을 보고 측은호고 불상호생각이 이러하며 입원치료호기
를 간절이 원호았스나 옥심의 형편이 입원치료의 정도가 불급됨을 아랏던지 입원호난

비용은얼마던지그이가당할거시니어서급피입원하기를역권하였섯다
 그이로말호면치산이또호그리풍족호것도안이요더구나근년의상업의실패로써너
 용은자못곤란호던터이지만은그리도그이의런성본심이라자선심과의협심이충만
 호는그이애마음은자과의능력도교계치안이호고다른사정도도라볼여지가업스며
 다만옥심의축은호정경과혈々무의호신체를불상히동정호뿐안이라그이로말호면
 위성을존송호야질병이사람의게원슈임을기히공격호던성질이라이입원하기를역권
 한바이나옥심으로말호면일가치척도안이요야모상관이업는터에무단이남의신세
 만지는것이디단미안호여절디적사절호였스나그이논듯지안이호고인력거에옥심
 을터여가지고엇디호사립병원에입원호바되였다라

그병원의의사는옥심의병세를잘못보고그치료함이증세와서로맛지안이하야일점
 의효력이업서하로잇를점々느져슈삭이되였다라디져병에약을더짐은맛치관역에
 활을맛침과일반이라과역을잘못보고활을쏘으면척디를쏘와도맛치지못함과일반
 으로병을바로알지못호고쓰는약은천첩을쓴다호야도효력만보지못호뿐안이라도
 리여병세에디호야위히를제쳐추난것이라그리하야서그이논옥심을그병원에서퇴
 원을식이여제중원일등실에입원한바되였다나디제중원은다른병원과달나서밤으로
 난환자의면회를허락지안이하는고로그이논밤으로두어번식방문호고밤에는편지
 와쇼설을보니여적막호마음을위로호바되였다라

옥심은시로々차차오난그이의낫을보와제중원에입원하던날부터일홈을긋쳐옥자
 라고그의성의본색을숨기였는디언어법칙과형동처신이심히단정호야의사며간호
 부사지도옥자의본색을아라보져못호였스며그이와부부인줄로밧고잇섯더라그리
 호야엇디호간호부난그이와옥자를가라쳐의가도호부부라고충찬호일도잇섯스나
 그들은또호안이라고발명은호지안이호았섯다

그이로말호면옥자를구호함이출정을취호도안이요장리에보복을밧자는마음도안
 이요또호호자의게동정을엇자는욕망도업서다만혈々무의호의로운신세를불상히
 성각할뿐이라그리서처음병원으로부러호로두번식은비가오던지바람이불던지괴
 어히차자가그마음을위로호며시종이호갈가치이호호여준다

그리서옥자도그이를천척가치는호이밧고시간도되기전에마음에는기다리는척가
 만호였다

아그이로말호면덕의심과의협심은가히충찬안이할슈가업다근리에화류계에습
 관을비교호야보면여간천밀호관계가깊다호난사람이라도이러호척을당호면아모
 쫓록모피를호며그중에동정이깊다는사람이야몇차례문병뿐이요그릿치안이호면
 과자상자나보닉추난것을성식으로아는세상이엇난디그이로말호면옥자와하등관
 계만업슬뿐안이라호조각마음도서로밧쳐본바가업고장리라도천절이지니여보
 자는괴약도업시단순호남々세리라하다호저산을괴우려이가치구호호은들재이요

허구한날 모든 일을 쫓아다니고서로 갖쳐보와 유난 마음은 실로 감사 혼일이다
 예오회 몽혼실
 옥자를 담임하여 치료하여 유난의사는 동양에 명망이 자못 떨쳐난 오박사이엿는뒤오 박사는 옥자의 병을 처음 진단하고 일주일만 되면 몽혼을 할 것이요 몽혼하지삼십오일이면 완치되원하리라 고미리 선언하바이다 그러셔 옥자는 몽혼할날도라온 것이 죽을 날도라온 것갓치 근심된다 그러나 세월은 기달일사 록별로 더딘 것갓고 원망할사 록속한 것갓은 법이라 옥자의 근심되고 걱정한날은 다만 하로를 지켜 하엿더라
 옥자는 입원한날부터 제일맛기슬인것은 하로 두어 번 식병실을 소독하느니 음식요제 일듯기슬인것은 여러환자의 신음을 할난 소리이다 더구나 씬죽 < > 하고 소름이 죽々 끼치는것은 병원에서 환자가 죽어나가는것이다

뒤져 병이라는것은 처음시 초부터고 명혼의사의 전찰을 받고의약으로 치료하여야 하험을보난 법이라 우리조선은 아족도 하등사회에서는 미신에 미혹한일이 적지안이하야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무당과 장님을 의뢰하여 귀신의게성명을 의결한다 가할슈업시 병이기우려져 죽게된후에야 병원에 입원하난일이 많음으로 아모리 화타편작갓른의사라도 치료하기가 더 단어려운 법이다 그러고로 우리조선은 절도할격언이잇스니 상등계급에서 무당의 집을가게 되면그 병은 반다시 죽고마는 법이다 그것은 다른연고안이라 의약으로 치료한다 가할슈업서 무당의 집을가는 연고요 하등계급에서 병원

을오면 그 병은 반다시 죽난 법이다 그것은 무당의게기도만한다 가 병이기우려진후에야 할슈업시 병원을오난 연고이다 그런사담에 제중원에는 서양의학박사와 동양에 유명혼의학전문학사가잇고 또 혼생심으로 치료를하여 유것만은 효력을엇지 못하코 할슈업시 죽어가는 환자가 적지안이하다

병원은 실로 굉장한 규모이다 미일에선 입원자도 불가승수요 병을 완치하여 온난함으로써이러한 광경을 목도할제 마다 옥자의 생각은 나도저와 갓치 죽을 병이나 안인가하야 소름이 쭈쭈 끼치인다

니가 만일 죽고보면 고향에 늘근 부모가 오죽 설어하실가
 이려 혼생각이 가슴을 자극하며 혼연 눈물을 흘리며 그이를 향하여 아리와 갓치 말을 무렸다

니가 만일 몽혼을 하고서어나지 못하코 인히 죽되 보면나의 신례는 다만 서울공동묘 디에 일분도가 되고 말겠지요 그러고나의 혼벽은 불여 귀시가 되여 슬피 울겠지요
 아니 니가사라나야 당신의 은혜도 갑파 불러인디.....

그러고니가 만일 죽고보면은 헤갈기느고 사하코 치하하 마티 당신의게 하여 줄사람도 업시나의 신례까지 당신의 신세를 쫓지겠지요
 그이논이 말을듯고 허우스며

몽혼을한다 고 죽난법이안이여 몽혼을 잘만하고 보면 일호도 위험치안이 할뿐안이
타오의사는동양에유명하신슈담이요점야돈은얼마가들던지쥬혼치료로고등
슈술을야달나고부탁짜지했스니쥬호도근심할리안이아

이게할리이아
그러나의사의말을듯건티몽혼말하면아모염녀업시치료가된다하니근심할바아
나라

이와같은말을쥬고보는동안에서창에히가괴우려지며버들입사귀의그림자가유리
창에얼는 / > 혼다

거마괴에병원문이뚝々올니난소리가들니며간호부가드러오고뒤밧치의사도드러
와서다시진단하여보더니간호부의게아리와같은쥬의를식인다

아-환자의슈술준비는잘되어야가니오날밤부터식물을정지하고음제를먹이며
일오전아흡시에이환자슈술을할리이니쥬의호오

이러흔의사의말을드른옥자난사형선고나밧은것갓치가삼은두군거리며슈각은환
관하여것헤잇난자기양모다려니일은일즉이와셔입회하여달나고부탁하는말소리
는자연설니인다

그날밤의시간은엇지그리빠른지옥자는근심에쓰이여눈도부쳐보지못하고그티로

날을말졌다부탁하였던양모난아죽도오지안이하고시간도되기전에그이난와셔슈
술에디흔슈술을진행할시자기가입회하기를자원하였섯다그러서그이는옥자의남

편이라고병원문서에기록하고모든척임을모다부담하였다

아-그이와옥자는병원문서에알도당도안이흔니외가되었섯다

그러나옥자의상각과갓치옥자가만일죽고보면치하의말은한마티드러볼것도업고
총칭척출하난척임만압폐당할것이다그러나그이난본티일점도쥬져함이업시옥자

의근심함을가엽게역여위로함을마지안이하며시간을기다리고있다

사무실에서게논아흡점을막치자간호부난드러와불근옷을옥자의게입히며슈술사
간이되었스니어셔몽혼실로가기를저촉한다

옥자난관에가논소거름모양으로할일업시그이와흔가지로몽혼실을향하였다

몽혼실은삼층우인디런정서지유리로장식하여일광이예민흔기게우에반사되야심
겁하야잇난옥자의가삼을놀ნი었다광체가찬한는슈술상우에옥자는누어있다

그방에논의사가두분이요쥬슈가두분이요간호부가세분이요입회석에논다만그이
홀로늠려다보고있다

옥자의머리우에는흰슈건을덮고두눈은슈건으로가리여있다쥬슈난몽혼약병을기
우려흡슈하기를시작하였다
간호부난옥자의엮혀셔쥬무심잇싸하고연히못는다옥자는처음은티답이뚝뚝하였

스나 심분동안이지니 대답은 점점 희미하고 다시 오분동안이지니 더니 아주 감각이
업는 잠이 아주 깊히 드러 환연이 곧 혼살을 구난 모양인 대륙은 속에서 리암이 우난 소리
가 처량이 들린다
의사는

자 - 인제 난 되었다

학교 옥자의 몸에 불근 옷을 거더 바리고 일변으로 소독을 하며 무섭고 예민한 칼을 드러
옥자의 살을 어이기 시작하였다 칼날이 지는 가는 곳은 불근 피가 릴리하게 흐른다 조슈
들은 무수한 적은 썩혈로 피나 오난 혈관을 모다 썩어 노흐니 피는 나지 안이 한다
의사 난일로부터 옥자의 몸에 잠겨 잇는 병근을 쓰러기를 시작하였다
그이 난일 회색층대에 서서 그 광경을 내려다 보며

아 -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독한 것이 다 살을 저와 갖치어 이고 었지다 시사라 나나
맑은 정신이 도라고 보면 여복 앓플가

이러한 생각을 하는 동안에 옥자의 거동이 칙은 학교 불상하며 가슴은 자연 압품을 감동
하였다 의사는 그이를 향하여

아 - 놀라 었습었가 오날 수술은 아주 만족하게 되었다 자 - 이것 보십시오 이것
을 그 뒤로 두면 언저던 저 병은 나지 못합니다

하면서 오려 노흔 살을 잘 노써러 보이며 병근을 설명하여 주는 뒤 곧 마취되어 잇는 옥

자의 호흡 소리 만 잔잔이 적막 혼공 기증에 들날 뿐이다

대륙회 사 조목의 명세

옥자 난들 것에 이어 병실 노려 왔셨는 뒤 잔잔이 긴 호흡 만 슈일 뿐이요 두어 마터어
머니를 부를 뿐이다

간호부의 말을 듯던 뒤 사람이 몽혼을 당하면 자기의 습관을 잠고 되 갖치 섬어 흠은 전례
이엿스나 옥자는 다만 아모 말이 업습을 불지라도 그 결심은 얼마나 단々 흠을 가히 알지
라 만일 옥자가 괴성의 하던 습관으로 시쇼나가사를 하였스면 그 열혜 있던 그의 모양
은 엿더 하얏스며

병실로 온 지이 심분 가량이 나 되며 옥자는 신음한 소리를 말하며 힘없이 눈을 들고 보
더니 그이를 향하여 손을 좀 달나 하야 붓잡은 비 되었다

아 - 나의 몸은 엿지 되엿서 오다 만 압두고 쓰릴 뿐이로 구려
일로부터 옥자의 병은 점차 덜나가기 시작이 되며 몽혼한 지이 슈일이 됨이 괴거의 자유
를 엿게 되었다

학교 난 옥자와 그이 난서로 마 슈안자고 답과 갖치자 자 괴들 지내오던 녀사가 이 약이
되얏는 뒤 옥자는 남편의 괴이 정의를 실핽를 당하고 이 세상 남자를 미워 하던 말을 하얏고
그이 도너자의 괴이 정의를 실핽를 당하고 녀자를 미지 못할 것으로 맹던 하던 약이 가 되
얏다

량인은 서로 간담을 빗취이 미 서로 회포가 일반이라 량인의 결심은 서로 래시할 권만은
 전일실피를 동정하 난 감상이 흉중에 회하여서 로마음을 위로하 난 말을 하였섯다
 옥자는 무슨 결심이 있는 듯이 그이를 향하여 아 나는 마음에 결심하 바가 있쇼이다 하
 고 밋도 앓도 업는 말을 하였더라

이날 육월이 십륙일이 요욱자가 병원에서 못호호지 삼십오일이 라이날은 당초에 퇴원
 되리라고 오의사가 예언하 날인 디욱자의 병은 완치되야 퇴원하 난 날이 되였다

욱자 난 자 괴병을 치료하 고 퇴원을 하 게 되 니 여복질겨 하였스 리요 만은 천절이 간호하
 여 유던 간호부를 작별함도 또 호섭々 하야 그의 유선으로 천절하 던 간호부의 게정표
 사지 하야 유엇스며 웃나 나으로 병원을 작별할 식면 산으로서 벗부르 난 썩소리 소리
 가 옥자의 마음을 절겁게 한다

이날은 칠월칠석날이 요견우 죽녀가 상봉하 던 밤이다 섬々 호호성달은 서련에 걸녀 있
 난 디다 옥정옥자의 란간머리에 는 었더 호남녀 두사람이 마 유안잔 난 디 동편으로 안진
 것은 옥자이 요서편으로 안진 것은 그이라 옥자는 그이를 향하여

아 나는 당신의 은혜는 이 절슈가 업쇼이다 나의 눈우에 흠이 덮히기 전은 당신을 잊
 지안이 합너다
 아 | 당신은 몸에 잇는 의정은 다 | 너게 다 맛겨 줍시 요 경박하 녀자와 갖치의 정의실
 피는 업스리다

그러고 나 는 나의 마음으로도 나의 몸으로 종신도록 당신의 은혜를 갑하 불타이 을 서다
 당신의 의정만 니가 맛타 잇슬 뿐안이라 나의 의정도 당신께 맞기여 줄타이 을 서다

그이 난 옥자의 말을 듯고 입에 무러던 권연을 재떠 리에 뚝々 떨어 면서
 그러 면 나의 의정을 잘보 관할타이 면 그 디의 의정도 나의 게 맛기여야 지 우리 들이 서
 로 의정을 박구어 맛타 잇다가 다 사실피가 잇스면 었지 할가

하 면서 량인은 허々 우섯다 그날부터 그이와 옥자는 서로 의정을 맞기여 보기로 결정되
 앓 난 디련 디 신명하 해서 아 리와 갖튼 조건을 북쳐 밍세 하였더라

첫재 난 죽을 떠서 지오날 마음을 변치안이 할일이요
 둘째 에는 서로 정조를 직힐일이요

셋재 에는 삼년 후에 서로 동거 할일이요
 넷재 에는 동거 할 떠서 지는 서로 신성하 사랑을 가지 고 육정의 관계를 밋지안이 할일이

다
 아 | 그러호 의정을 밍세 하 면서 었지 삼년사 지 후 괴를 정하 난 조건을 북쳐 었는 가이 것
 은 옥자가 유장호 조건인 대 삼년 동안에 자 괴도 약 간의 금전을 모와 가지 고 그의 힘을
 더러가 면서 동거 하 자는 뜻이 었다
 이것이 모다 알 마 나 곳은 밍세 인가 만일에 이 러호 밍세가 변하 고 보면 과연 이 세상의 남
 녀의 의정은 밋지 못 할 것이 되고 말 것이 다

그 이와 육자의 가슴속에 실려로 인하여 다 말나 지고 업는 의정의 씨리에서는 차차 차
 입히 피고 가지가 나며 열미도 미지려고 무성하여 피차연의 난날로 급하게 되얏다
 인잔만사가 호사에 다 마라 육자의 주인은 량인의 사이가 점점 천절음을 슬히여 한다
 것은 무슨 사담인가 만일 그 저두면 오리지안이 호야 육자를 다려갈터이라 그러고 보면
 두고 두고 우려먹으라고 밥그릇으로 밋고 잇던 육자난이러 바리고 말것이라
 이것은 육자의 주인뿐만 아니라 괴성의 포유난 항우 잇난 습관이다 괴성이 한번 포유의
 돈만 쓰면 자유를 구속함은 물론이요 양순훈녀 자라도 청년을 썩이여 돈을 빼앗는 공부
 를 가라침의 심벌지목이 되어 양심을 이러 바리고 악마가 차지할 썩안이라 만일 괴성이
 남편을 맛나 드러가게 되면 그 동안 버러드린 것은 얼마가 되던지 훈훈도 빛으로 제호난
 법은 업고 본전에 멧갑 절식을 특중을 하면서 도의 복귀물 세간사지라도 호나 도너여 주
 지안이 호고 별건 몸통이로 너여 보너난 포유의 악습이다
 육자로 말하면 주인이 괴음을 전당함이 안이라 단순훈채 무의성절만 잇는 빛이 연
 만우 자유가 속박됨은 물론이요 자유의 평성은 인되는 사람을 슬여 함은 심하게 중한 일
 이다 그리호사 닭에그이 호야 육자의 신상에 학대가 도라올가 염녀호야 의면으로 의연이
 형적을 쓰코지 처천리의 상사의 꿈을 꾸게 되얏섯다

데철회 비몽사몽

슬푸다 육자난 여의미 진흙인 지일 노부터 주인이 학대를 받게 되얏다 그것은 다른 연

교안이라 은근이 저조를 직히고 외안을 상동함이 업난 사담에서 잔표외에는 낫선 돈을
 성면하기어려운 사담이다 그러저력 가을이 진호고겨울치위를 당도호얏는대던디는
 비설전근이되야 북악으로부터 너려부는 밍넬훈바람은 살을어이는데가련호야 육자의
 일신은 불도 업시 처운방에 침금으로 몸을 가리우고 더전덜시 홀로 누어 세상이 공변되
 지안이 호를 원망할 썩이더니 갈사록티산으로 주인은 드러오며 너도 괴성노릇을 할터
 이면 썩사아 좀호여 보아라 그러치안이 호면 서돈을 너여 못코가라
 아이 이것은 지독호학대이다 그 자리에서 죽으라호는 말과 다른 것이 업다 한푼돈이 업
 는시세가 다 슈한 돈을 었지너여 노라 육자가 당초에 주인이 괴오익원돈을 었어 부모의
 생활을 보티여 주었스나 그 동안 시간비로 버러드린 돈만 호야도 훈달에이 익원은 넘은
 터이니 삼년 동안에 입원한 달을 제하더리도 오류천원은 너너이 버러 주었것만은 사
 갈가튼 주인은 일호반점사정이 업시 이와가튼 학대를 유난도다

돈을 당장 너여 노라호니 이것은 남편을 보라호난 말이 지만은 육자의 곳은 마음은 죽으
 면 죽을 자언정 순종할 슈가 업난 말이다 주인이 마음을 순종호즉 양심에 자척을 밋음은
 들지이요 신명압해서 굶리진 밍세를 저바림이라 그러치안이 호면 돈을 당장 너여 노
 와야 할터인 터이리도 말할 슈업고 저리도 할 슈업논이 신세를 었지호 잔말인가 만일 그
 이가 알고 보면 마음만 더 상할 썩이니 차라리 목숨을 바려모르는 편이 낫다 결심호고 구
 슬가튼 눈물이 비오듯듯거니 밋거니 흘사능기여 우난디지 동치듯 밍넬훈바람은 잇다

금영창문에 눈을 모라 썩리는듯 문풍지 떠난 쇼리 만요란이 들날 뿐이다
 슬푸다 옥자는 눈물이나 털사 록흔이 업고 성각 할사 록 뜻치 업서 금침우에 업드러 저 일
 변으로 고향의 부모도 사모하 며 일 변으로 그를 부르 지져 두 눈은 통통이 부어 잇고 몸
 은 벌々 썰며야 모리 성각하야도 묘척은 망연하 다 밤은 적々 삼경인 디 누가 잇서 구원을
 하라 구차이 투성합이 죽음만 갖지 못함을 결심하 고치 마심으로 목을 띠여 그만 혼절하
 앳는듯 문풍지 떠난 소리 만요란이 들니 고는 바람 부다 치난 쇼리 만우슈々 할 뿐이라 슬
 푸다 옥자의 외로운 혼은 비풍어 기하야 잠시 동안에 그의 심속에 도라 갖다
 그날은 유심히 날이 처운고로 그이 난 옥자의 신상을 녀며 하야 밤이 깊도 록 잠을 이루지
 못하 고 가장 변민하 던 터이라 홀연 비몽사 몽간에 옥자가 드러오며 눈물을 흘녀 하 난 말
 이라

아! 이 몸은 무정하 당신의 은혜를 저 바리고 멀고 먼 길을 향코 자하 는이다
 말뚝을 맞치지 못하 고 홀々 늦기 여울기 만하 다 그이 난 섬작 놀녀 여정신을 진정하야 몽
 사를 성각하 니 심상한 일은 안이 요반다 시 옥자의 몸에 리롭지 못한 일이라도 하야 급히
 이러나 시계를 바라보니 서로 혼시 반경이라 평함을 쓰녀 여인력거를 옥자의 개보녀 었
 더 라 옥자의 주인은 요리집의 인력거인 줄 짐작하 고 거이 숨이 쉰어 자는 옥자를 혼드러
 췌엿 더 라 옥자는 겨우 몸을 이려 고이 가 부른 줄을 짐작하 고 즉시 인력거에 몸을 더 지엿
 는 디 몸은 파랗게 질녀 엿스며 턱을 떨々 썰며 잠시도 몸을 지탕키어 려헛다 그이 난 옥자

를 더 운방에 압치고 몽사를 일으으며 연고를 무려 보앗는디 두 눈은 통통이 부어 셔 일골은
 변형에 이르렀다 옥자도 그날 밤 쇼리를 말하 며 그이외 무릅우에 고리를 숙이 고 진사 이
 늦기 여울 뿐이라

그이 난이 러 혼광경을 보고 마음을 갈노어 이 난 뜻악마의 굴혈에서 옥자를 건지 고져하
 나 록히 힘은 밋치지 못하 고 옥자를 그터로 바려 두면 성존키어 려운지라 괴세실로 양란
 이나 옥자가 오날이 갖튼고 초를 받게 됨은 날노하야 신의를 직헌연고이니 리가 옥장을
 하 더 리도 구완치안이 하 면 인정에 참아 못할바이라 성각하 고 옥자를 위로하야 돌녀 보
 니 고그이도 도라와 자괴외여 간남은 상품을 방리하 며 동티셔 취하야 옥자의 빗을 갑게
 하 앳스나 세시는 필박하 고 시산범절이 곤란하야 명춘으로 연고 하 앳 더 라 옥자는 그이
 의 은혜로 몸을 속신하야 자유의 몸이 되리미 간의 첩々이 쓰이 엿던 슈심은 춘풍 화기가
 무르녹난 듯 혼연이 절거운 거동은 무엇이 라 형언키어 려와 더 라 그이의게 감사하 뜻으
 로 두어 줄편지를 붙치엿는디

아! 감사하 오이다 전일은 죽을 목숨을 살녀 주시더니 오날은 악마의 굴혈에서 나의
 몸서지건져 주시논 잇가 짐이 야 잇던 지업던 지 남의 희망방인 들무엇이 구의 되오릿
 가 녀우과 려치마옵쇼셔 그러오나 는오날부터 자유의 몸이 되야 청던 일월을 향하야
 신명제하 레함을 마지안이 하 앳는이다
 이와 갖치잔 단히 감사하 뜻을 붙치엿 더 라 디 저 옥자로 말하 면 자괴 록녀으로 라도 그만

것이 어려울것은 아니지만 자괴가 유선코자하면 반다사 자괴적조를 식히지 못할것
은 물론이오거짓의 정으로 사람을 속이난것은 양심이 북그러운 일이라
그리하여 그의 사업이나 성취되기를 신명세빌고잇슬뿐이엿섯다 그러나 그의 저
산이 곧 박홀터에 전력을 기우려이와 갖치속신할것은 일변으로 불안한 마음도 적지안
이 할엿다

대팔회 안당사

이날은 음력으로 정월보름날 저녁이다 광희문밖안정사법당에 난설법하는 경쇠소리
가 청々호바람에 날니여 산곡에적막을세느리며 잔々이 남무아미염불소리난완연이
극락세계와갓다창송은 좌우에울밀호고릭설은던디에가득할앗스며월식은만정하
야은세계들이루엇난디엇다호초당안방안에는남녀두사람이랑々이이약이호난소
리가들니며잇다금질겁게우슴소리도자지러졌다이남녀난엇다호사람인가남자
는그이요녀자는옥자인디그이호옥자의고적흥을싱각하야보름명절을그곳서지느
게되얏더라그들은전일지느은녀사와장리전형할일을담소하다가문득거문고를너
여웃고한곡조를희롱하니이것은양티진의봉황곡도안이요룡자괴의아양곡도안이
라이세상풍상을고루맛본옥자가창졸간지은바인디아리와갓흔곡조이더라
슬푸다우리인성이여

묘참히지일속이로다

전성에 죄악이 지중함이여

화류계에 괴성이 되엿도다

삼성에 은연이 지중함이여

인후정적호군자를 맞났도다

시속연심이 불량파축함이여

각적파란이 중첩하얏도다

념々 자제에 량인의마음이여

지척천리에 약슈가가 렷섯도다

자유속박에 서러운몸이여

설창호풍에 눈물을 뿌렸도다

군자의 후은을 만히 입음니여

악마의 굴혈에 서속신되얏도다

복중에 싸인서러운회포이여

한강의류슈가 양々이 흐르도다

리산갓튼군자의덕이여

백년서지몸으로 보답호리로다

시속인심이 소박함이여

우리의 역사를 후세에 전하려도다

이러한 거문고 소리가 똑곳치고 남녘의 벽창으로 창가는 소리가 맑은 바람에 싸이여
반공에 훑터진 다 이 창가를 뜻짓던 학계에 교육을 권장한 창가도 안이요 화류계에 유
형하는 유흥의 창가도 안이라 그 이와 옥자의 지니오던 녀사와 장리의 희망사지창가에
올니여 창화홍음성으로 쌍쌍이 부르르난 터 비록 연구가 업시 줄디에 지은 바이지 만은 한
번이 세상에 유흥하고 보면 신의를 존송한 난풍기에 열마름유익할 창가이다

사랑할손	청풍은	나의 뜻이요	청풍명월	북창하	마주안자서
유의할손	명월은	그티정이라	파란만던	녀사가	그도락이라
통명한풍	창송은	항상푸르고	푸른솔의	지조난	그이 뜻이요
설만건곤	홍미난	홀로볼것네	한미화의	절기난	옥자이로다
도덕만히	형하면	북이이르고	신을모를	부귀난	홍진비리요
신의구개	적하면	덕이오도다	의를치한	고초난	고진감리라
론에팔난	의정은	김지못하고	근원김흔	류슈난	마르지안코
뜻이합호	사랑은	한이업도다	석리약호	효목은	얼른솔닌다
지척천리	상사몽	약슈가렸고	가현하다	자유는	속박되얏고
설창홍홍	참한물	실성구사라	다만일루	희망은	그이 썩엇다

출롱화기	조흔복	도라왔스니	일뫼출광	호시절	련하만물이
소쇄하던	산야에	빛치서롭다	이유자락	질기며	활기잇도다
련디신명	압헤서	곳은명세논	룩슈원왕	우리의	장리할일은
은하슈가	지금도	밝아잇도다	조흔사업	가리여	성취함시다

이러한 창가난 곳치고 다시 전후사를 이야기한다 가옥자는 왕소군전을 너여 보더니 문
득 소군이 태궁에 갖쳐여 고통함에 이르러 난전일자의 신세가 감상되야 다시 면상에
눈물흔적 이보이난 터 법당으로 서열두시를 보호난 시계 소리가 은하바람을 좇차들
니며 서창으로 월식이 기우러져 나무그늘만 활동사진 갖쳐 영롱하다

데구회 리상덕가대

황도현마루턱으로 었더흐남녀 두사람이 조석으로 나란이 왕리함을 보게되얏난 터이
것은그이와 옥자 두스름이라

그들은넬로한 풍상을 슬이여 할뻔안이라 경성에서 가장공의 좃코 슈석 조흔유벽호삼
청동에 리상덕으로 선가당을 건설하얏난 터 집은 비록크지 안은 조고만한 초가집이나
문밖에는 조고만 처정원과 일반으로 구불 / 흐소나무를 좌우로 심어 노아잇고괴이
흔괴석도 벽을 맞쳐 버리어 노앗난 터 잔하이 북은 단풍과 푸른 버들이 석괴여잇다
터 문안을 드러서 보니 좌우로 각 석화초를 심어 노앗는 터 특별이 조곰아흐반송호괴와

미화호설기를지비호였스며모랄작약월계박일홍갓은것은솔과미화를위호야비경
 으로서노앗스며쥬고만호연못가온디금부어남양々히쥬리를치며부침호다현관
 점문우에노송미당이라노현관을다라노앗스며방안을도라보니문갑우에만권시서
 와철현단금을기워노와있다가구병절과가정제도가화려호것은업스나다만경편
 표결할뿐이라그집의주인은곳그이와옥자이엇난디솔나무난그이를비유호고한미
 화는옥자를모방호야청송한미를심엇스며당호시지송미당이라호것이라
 그이를침방에는좌우에쥬련두어줄을족자로거러노앗난디고난락의근본이요이는
 인의성명이라

이와갓치두줄족자이다무심호사람이무심히보면별로의미가업지만은몬져말호것
 은옥자의전반성을말호것이요뒤에말호것은옥자의후반성을말호것이다

아! 과연그런타락이라호는것은피로운가운더로쥬차나온것이쥬흔락이요사람이
 라호는것은저산은쥬부족할지라도이정이갑호면사라가호것이다그이들의정은가
 장엇더호인정인가이것으로락을삼고이것으로성명을삼아저정이부족함을원망치
 안이호고츄우츄풍과화조일석을치미잇고취마잇난성화를호여간다그이로말호면
 자본이코갈함을인호야어느사회에서되월지불호여쥬난봉급에의식을부처그리풍
 족호성활이라고난할슈업지만은간신<이외식은근심업시지니여간다옥자로말
 호면전일지니오던너사를성각할세마다마음을다호고정성을괴우려그남편을공양

호며뺏북은앗찰과달밝은밤에거문고를무릎우에인쥬전일안당사에서지은곡조과
 창가를희롱호야남편의심신을질겁게위로호다두사람사이는다만부족호것은아주
 널리가밋치지안이호미유감이나이세상에가장원만호가당이라호것은아마도이러
 호가당을가라쳐말호인듯호다

어느날은옥자가호연왕사를회고호다가그남편을도라보며호난말이다

아! 나의전반성은리々눈물뿐이엇쇼이다세상에희망이쓰어저비관할세에일을
 성각호면오날에가당을일루고쥬뜻호인정가운더후반을괴약할줄이야누가가랏
 겿슴잇가그것을미루워성각호면세상에측량치못호것은사람의일이올사다그러
 그이난이말을듯고호々우스며

티더사람의눈물이라호것은이당으로쥬차나오난것이지요만일에이정이업고보
 면눈물을쥬호내보려고이를써도눈물이나오지못호난법이야국가를사랑호던지
 부모를사랑호던지안히를사랑호던지자괴몸을사랑호던지무엇이던지이정이마
 음에감동함이잇서야눈물이저절로나오난법이야그리서나난옥자의전반성의눈
 물을사랑호야이정의눈물이라호는쇼설을만들성각이요

그러고옥자의후반성을가라쳐이논인지성명이라고호난말이참기쁜말이외다
 이세상에제일무엇보다도더큰것은이정이야국가라도군신과민족이서로사랑호
 여야호왕호난법이요가당이라호것은더욱이정으로지비호난것이미물에김성